

아이디어 하나면 'OK'...순천형 창업생태계 만든다

6~11월 창업아이디어경진대회

거점 역할 창업보육센터 내년 준공

순천산업진흥원 설립·창업펀드

투자환경 조성해 창업도시 발돋움

순천시가 아이디어 하나로 성공하는 창업도시를 만들기 위해 '순천형 창업생태계' 조성을 본격화한다.

1일 순천시에 따르면 순천형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업아이디어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창업보육센터 설립과 투자환경 조성에 나선다. 창업과 투자를 통해 창업아이디어와 지역경제가 선순환되는 창업생태계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창업연당', 아이디어 창업 도와

지난해에 이어 열리는 제2회 창업아이디어경진대회는 적격 참가대상자 선발과 전문성 확보에 주력한다. 참가대상은 3개월 이내 순천시로 사업등록이 가능한 전국의 예비창업자이다.

제1회 대회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획·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창업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단은 이달 내 창업 아이디어의 발전과정 설계와 대회 운영에 대한 방향을 설정한다. 이 후 대행사 선정은 5월까지 완료하고, 6월부터 11월까지 경진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순천시는 경진대회 선발팀에게 연간 1억원의 창업지원금

을 지원한다.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창업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순천시는 앞서 창업지원시설인 '창업연당'을 설치, 운영자를 선발해 이달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창업연당'에서는 창업경진대회와 입주기업 모집을 통해 선발된 창업팀에게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교육, 멘토링, 투자자 연계를 지원한다. 또 창업문화형성을 위해 시민과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네트워킹 행사, 창업아카데미를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순천시는 이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의 창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창업 진입장벽을 낮춘다는 전략이다.

◇민간 거버넌스 구축하고 창업보육센터 건립

순천형 창업생태계의 거점 역할을 하게 될 '창업보육센터'의 윤곽도 드러나고 있다.

창업보육센터는 역세권 도시재생구역 내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된다. 지역 27개 창업지원시설에 산재해 있는 창업자와 지원기관, 투자자, 창업기획자를 연계하게 된다.

이달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설계를 마치고 내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1층에는 시민과 예비창업자, 창업전문가가 교류하는 카페가 들어선다. 2층과 3층은 성장 단계별 창업기업이 입주한다.

민간이 주도하는 창업 생태계를 위해 민간 거버넌스 구축도 진행한다.

시민과 공공기관을 연계하는 중간 지원조직 형태



순천시가 아이디어 하나로 성공하는 창업도시를 만들기 위해 '순천형 창업생태계'를 조성한다. 지난해 11월 순천창업아이디어경진대회에 참가한 예비창업자들이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의 거버넌스는 4가지 분야에서 활동할 계획이다. 창업지원 정책의 발굴과 운영, 창업기업 성장을 위한 지원서비스의 설계와 운영, 창업 자변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창업 선진사례를 분석하고 지원사업을 평가·연구하는 역할 및 수행 등이다.

거버넌스 조직은 앞으로 설립하는 '(가칭)순천산업진흥원'의 초석이 될 전망이다.

◇순천산업진흥원·창업펀드 설립

창업은 쉽지 않다. 급변하는 시장에 따른 예측 불

가능성이 크지만 행정지원은 더디기 때문이다. 이는 창업 5년 후 생존율이 28% 수준이라는 통계가 뒷받침한다.

순천시는 민간이 주도하는 창업생태계 조성하고 창업 전문인력의 활용을 위해 '(가칭)순천산업진흥원'을 발족할 계획이다. 창업보육센터 설치·운영, 지역특화산업 육성, 국내외 판로 개척, 기업 브랜드화 지원 등을 담당하게 될 지원원은 제도 정비를 통해 2022년 출범할 예정이다.

순순환 창업 투자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도

진행되고 있다.

올해 정부의 창업지원 예산은 1조4000억원에 달하지만 대부분 사업화 지원에 편중돼 있어 투자회수를 통한 재투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순천시는 일방적인 창업 지원에서 벗어나 성장기업에서 회수된 투자금을 또 다른 창업기업에 재투자하는 창업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순천시가 출자해 주식회사 형태가 될 창업펀드는 2022년에 선보일 예정이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순천경찰·보안자문협의회

탈북민에 코로나 예방용품 전달



순천경찰서(서장 노재호)와 보안자문협의회(회장 노양기)는 지난 31일 탈북민들에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마스크, 손소독제 등 위생용품을 전달했다. <사진>

이들 기관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탈북민들이 소외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 성금을 모아 손소독제 등을 구입, 지원했다.

탈북민 이모(여·56)씨는 "마스크 구입하기가 너무 어렵고 무서워서 밖에 나가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집에까지 찾아와 손소독제와 마스크를 지원해줘 감사하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신대지구 도시농업텃밭 새단장...7~10일 분양

순천시가 신대도시텃밭을 새로 조성해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순천시민을 대상으로 분양 신청을 받는다.

순천시는 지난 2016년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해룡면 신대리에 신대도시농업공원을 조성, 텃밭을 운영했다. 지난해 이 텃밭이 전남도 동부통합정사 부지로 결정됨에 따라 인근에 새롭게 신대도시텃밭을 조성해 오는 25일 개장한다.

순천시는 개장 전 텃밭을 분양함으로써 개장과 동시에 텃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번에 분양하는 텃밭은 180구좌로, 세대 당 1구좌(10㎡)를 신청할 수 있으며 연간 3만5000원의 사용료를 내야 한다. 또 무농약·무화학비료·무비닐 등 친환경농법을 실천해야 하고, 오는 25일부터 12월31일까지 텃밭 사용이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면 순천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jhjmomo@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접수를 최소화해 7~9일 이메일 접수 위주로 신청을 받는다. 이메일 접수가 어려운 희망자를 위해 오는 10일 하루동안 해룡면 신대행정복합시설 2층에서 방문 접수를 받는다.



순천시가 해룡면 신대리에 새롭게 신대도시텃밭을 조성해 분양한다. <순천시 제공>

순천시 관계자는 "도시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텃밭을 조성해 분양한다"며 "도시민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건강한 먹거리를 직접 생산할 수 있는 가족

친화적 녹색 여가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고영진 순천대 총장

'순천형 권분운동' 동참



고영진 순천대학교 총장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순천시가 추진 중인 '순천형 권분(權分)운동'에 동참, 500만원을 기탁했다. <사진>

고 총장은 지난 31일 순천시청에서 허석 시장에게 "조상들의 지혜를 본받아 추진하는 '권분운동'으로 어려운 이웃이 함께 웃으며 위기를 극복하자"며 성금을 전달했다.

허 시장은 최근 조선시대 고을 수령이 극빈자 구제를 위해 부자들에게 재물 나누기를 권했던 '권분(權分)'의 미풍양속을 소개하며 '순천형 권분운동'을 제안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차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